

From 편집국

대청소를 하다



박채원
편집부국장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어느새 한 학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뜨거운 햇살에 벌써부터 한여름이 걱정되는 나날입니다.

5월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대학보는 2019년 1학기 발행을 한 회차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를 조금씩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9년 2학기를 꾸려나갈 새로운 데스크가 선발됐고,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102기 인턴 기자 분들도 함께 발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CC B217호의 이대학보 편집국을 사용 한지도 어언 11년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 할 때 목욕재계를 하듯 새 분기를 맞이하기 전, 학보 기자들은 편집국 구성구석을 다 뒤집어엎어 대청소했습니다. 학보 기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학보의 부수만큼이나 쌓인 기자들의 생활과 추억이 담긴 짐과 먼지들 모두 훌훌 털어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이겠거니’하고 내버려뒀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전의 편집국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고치고 또 고친 기사들의 흔적도

“

빛 바랜

흔적속에서

”

있었습니다. 양쪽 귀의 철이 벗겨진 돼지 저금통부터 너털너털한 10년 전 학보 회의록까지. 이제는 노트북과 컴퓨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타이핑 기계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뉴욕타임즈를 스크랩해 놓은 책은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대청소를 마음먹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유물’을 발견한 셈입니다. 알게 모르게 편집국에서 함께 숨쉬고 있던 학보의 물건들이 학보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편에 먼지 쌓여 있던 상패는 잘 닦아 학보 가운데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작고 빛바랜 대학신문상 상패를 보고 있자니 새삼 이대학보의 영향력에 대한 생각이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청소를 하며 불필요한 것은 털어내고 필요한 것은 주려내는 과정이 비단 B217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언론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화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안과 밖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불필요한 것은 털어내고 필요한 것은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결음씩 나아가는 이대학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 중 발견된 타이핑 기계

취뽀내뽀

또 뽀개진다 하더라도



양한주
선임기자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팔꿈치 언저리가 간지러운 게 느껴졌다. 반가운 올해의 첫 모기다. 크게도 몰랐구나, 녀석. 스테디에 가려고 집을 나서니 부쩍 더워진 날씨가 여름의 초입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는 ‘낮 기온 33도’, ‘때 이른 무더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열이 많이 더워와 모기에 모두 취약한 나로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모기와 함께 취뽀내뽀의 마지막 마감도 훌쩍 다가왔다. 이는 기말고사가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백수인 나는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더위와 모기 말고도 이 여름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취준을 시작하고 첫 필기시험에 응시했던 게 재작년 여름, 그리고 가장 산산이 뽀개진 탈락을 겪은 게 작년 여름이기 때문이다. 두 여름 다 가만히 있기에 힘들도록 더워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르게 시작해 버린 더위에 지난 여름들이 떠올라 주춤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다시 기름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곱창에 볶음밥까지 든든히 챙겨 먹고 24시간 카페를 찾았다. 과거에 얽매어 이 여름을 날리기에 할 일이 많았다.

사실 1선에 나온 서른 번째 탈락 이후 나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는 한 번도 탈락하지 않았다. 언론사 공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물려서 뜬 공채에 최근 몇 주간의 모기물린 자리의 간지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바빴다. 지난주 오 랜만에 본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한동안은 매주 주말 필기시험을 보러 다녀야 한다. 오늘도 이 글을 쓰고 나면 상식 베퉼치기를 위해 밤을 지새워야 할 판이다. 평소에도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고 셀프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정신을 다잡아 본다. 연이은 시험이 바쁘게 지나가고 나면 완연한 한여름이 되었을 것이다. 그 무더위를 어떤 마음과 상태로 버티게 될까.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더 탈락해야 취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취준을 시작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직장인 칼럼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나 ‘여러분은 금방 취업할 수 있을 테니 힘내라’는 낙관적인 위로 같은 건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뽀개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간절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 무서워 조바심을 내는 건 다르다. 때때론 정말 죽어라 했지만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 후회 없이 했다면, 다음 목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자. 또 뽀개지더라도, 다시 불이면 되지! 나를 비롯해 여름을 버티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취업을 뽀개겠다는 기쁜 소식으로 이 연재를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속 시원한 사이 다들 주지 못하고 떠나게 돼 유감이다. 그렇지만 내가 목표로 했던 모습과 조금은 가까워진 어떤 미래에,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은 기자가 돼 분투하고 있을 어느 순간에 취업을 뽀개고 사회에 나선 소감을 다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취뽀내뽀는 끝난다. ‘취업 뽀개러다 내가 뽀개지는’ 일상은 계속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주만 있으면 달려가겠다.

상록탑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 보내기



인물팀
배세정 취재부장

이번 주 월요일에 늦잠을 잤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3개나 있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오후 2시까지 자버렸다. 수업 3개는 모두 무단 결석했다.

잠자는 그 순간은 달콤했는데, 일어나자 후회가 됐다. 어차피 학보 회의하러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냥 갈걸, 지금까지는 이렇게 연속으로 무단결석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뒤늦게 나의 학점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요즘 내가 후회한 일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교직수업에서 과제를 까먹어서 2주일 미루기도 했고, 며칠 전에 치렀던 조선시대사 중간고사는 아는 게 거의 없는 채로 시험을 봤다. 얼마 전 동양사 퀴즈도 거의 맞은 게 없었다. 내 달력에 할 일과 일정은 많은데, 막상 나에게 남은 건 없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내 앞에 닥친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막상 제대로 못하면 나를 자책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간 이번 학기를 끝마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했다.

나는 모모가 돼보기로 했다. 미하엘 엔데(Michael Ende)가 쓴 ‘모모’의 주인공말이다. 책 ‘모모’는 사람들은 속여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와 그 시간을 지키려 하는 꼬마 모모의 이야기다.

회색 신사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도 계산대 줄을 서지 않으면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모의 시선으로 본 사람들은 아주 이상해 보였지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나도 회색 신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렇다 할 목표 의식도 없이 시간에 쫓겨 과제하고, 하나 끝내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또 끝내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과제하거나 공부하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많았다. 친구랑 놀더라도 그 만큼의 시간을 또 아껴 써야 했다.

책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중략)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나도 모모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쫓기는 사람에게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번 주 월요일에 잠을 자느라 수업에 못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가끔은 여유롭게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잘 수 있는 게 행복하다. 시험을 잘 못 본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까짓 학점보다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마감 기한에 ‘맞추기 위해’ 하지 않겠다. 나에게 기한을 줌으로써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회색 신사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 내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해 쓰겠다.

만평

이유빈 만평기자 yobin0228@ewhain.net



금주의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 파커 J. 파머 지음, 서울 : 한문화 : 한문화멀티미디어, 2019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상관없는 엉뚱한 기대들에 둘러 싸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버리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교육받아 왔으며, 하루하루 ‘해야 할 일’, ‘그렇듯한 일’에 매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참자야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일이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은 바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살피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로자 파크스의 일화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참자야를 찾는 여정에서 가장 깊은 질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타고난 본성은 무엇인가?’이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 곧 신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내면의 깊은 상처인 우울증을 겪으면서 겸손의 미덕을 알게 되었고, 어둠과 빛, 약함과 강함이 존재한다는 인생의 역설을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써 더 확고하고 충만한 자아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이화인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서고위치 :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248.4.P182L(한 2019)

-중앙도서관-

여론광장

학생들의 끼니는 학생들만의 고민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화는 매리 F. 스크랜튼 선생님이 가난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고 양육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지금의 이화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그 때와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 더 이상 학교가 배 곯고 힘든 아이들을 찾으려 다니지 않으며 학생들의 끼니와 주거는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 혼자서 온전히 감당할 만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학생들의 ‘식사 해결’은 누구나 직면하는 매일의 문제다. 그렇기에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혹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재학생 약 105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하루 동안 자신이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6%였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 부족, 종류 부족, 경제적

부담’의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재학생 A씨는 “학교에서 학생의 식사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식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식단 개선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 ‘학식 개선’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였다.

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내의 질 좋고 저렴한 식사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식사 해결에 있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가 이러한 책임을 분담했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줄곧 ‘학생의 식사권 보장’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숙사 식당의 유통적이지 못한 시간 배정은 학생의 수업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른 아침 수업 후 식사를 해결할 곳이 없어 편의점에서 해결하거나, 어쩔 수 없

이 거르는 학생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생활관 학생식당을 보완 후 새로 개장하였음에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은 점을 보아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식사권 보장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식사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화’라는 사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그 책임과 권리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의 문제다. 복지는 소수의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 또한 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직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사회와 학생이 달라졌다고 해서 스크랜튼 선생님과 이화학당이 오롯이 학습만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왔던 그 믿음과 노력을, 학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누리(사법대·14)